



이 찬 희

- 민족사관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재학 중
- 2018년도 제62회 5급 공채 재경직렬 합격

##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18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재경직렬에 합격한 이찬희입니다. 우선, 제 수험생활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여러 선배님들의 수기를 읽으며 수험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전략을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저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합격수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기를 쓰기에 앞서 어떻게 합격수기를 써야 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겪었던 수험생활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공부전략을 세웠으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수험생활을 보냈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공부 방법론적 측면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II. 수험생활

### 1. 전반적인 생활패턴

수험기간 3년간 아침 7시에 기상해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밤 11시에 공부를 마쳐 12시에 취침하는 패턴을 유지했습니다. 일요일은 1~2시간 정도 더 늦잠을 잤고, 평소보다 이른 저녁 5시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공부할 의욕이 도저히 생기지 않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고양이와 노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험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루에 30분씩 달리기를 하며 체력을 관리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부의 지루함도 달래주어 공부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수험생활에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2. 2015년 ~ 2016년 상반기

대학에 입학하고 바로 행정고시를 준비하고자 했으나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이는 기본서를 과목별로 구매하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PSAT 기출문제들을 출력해 풀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시작하여 막막했습니다. 기본서를 읽어도 이해가 어려웠습니다. PSAT 기출문제도 시간 내에 반도 풀지 못해 충격을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국 2015년도 1학기가 종강할 때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2015년도 여름방학에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년간 휴학을 결정하고 여름방학부터 행정고시반에서 제공하는 특강을 수강했습니다. 특히, PSAT 강사님들을 직접 초빙하여 3주간 진행된 특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1순환과 2순환 강의를 수강하고 주요 기본서를 읽으며 2차 과목들도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5년 11월부터는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반에 입실하여 공부했습니다. 이후 2018년도 최종 합격하기까지 성균관대학

교 행정고시반에서 수험생활을 보냈습니다.

초시에서 1차 시험은 무난히 합격했으나 2차 시험에서 행정법 점수가 부족해 아쉽게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 3. 2016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이 기간은 세 번의 도전 중 제가 유일하게 실패라고 규정하는 기간입니다.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초시에서 소수점 차로 탈락했으니 다음에는 당연히 붙을 것이라는 생각은 은연중에 가졌습니다. 3순환 시기에 '설마 이 내용이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2차 시험에서 출제되었고 결국 합격선보다 무려 5점이나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는 자만으로 패배를 맞본 경험이 다음 해에 합격까지 도달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 4. 2017년 하반기 ~ 2018년

3년의 수험생활 중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기간입니다. 친구들이 교환학생, 인턴십 등으로 착실히 경험을 쌓는 것을 보며 저만 뒤쳐진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공부해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회의감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가장 컸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차례의 경험에 근거하여,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 비중을 늘려 시험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초까지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 문제풀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PSAT은 감각 유지를 위하여 실전모의고사 1회분만 매일 풀었습

니다. 2월초 설연휴에서 돌아온 후 1차 시험까지 남은 3주간은 PSAT과 헌법에만 집중했습니다. 1차 시험 이후 3순환 일정을 따라가며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2017년과 달리 이번에는 '설마 이 내용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전혀림자만하지 않은 덕분에 세 번의 도전 끝에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III. 공부방법

#### 1. 1차 시험

헌법은 80점 득점을 목표로, 즉, 과락을 안정적으로 면할 정도를 목표로 잡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과하게 소모하지 않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다른 1차 과목에 투자할 여유 시간도 확보해야 하므로 과락만 면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헌법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PSAT은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과목이라 어느 한 전략을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PSAT에서 강점인 과목과 약점인 과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어느 과목이든지 90분간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어려운 문제는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이 정말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버릴 문제는 버리되 풀기 시작한 문제는 반드시 맞는다는 생각으로 90분간 시험에 임했습니다. PSAT은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 문제에서 최대한 득점을 해내야 시간관리가 수월하겠습니다.

#### (1) 헌 법

헌법은 지난 2017년 시험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생각됩니

다. 60점을 넘으면 되는 과목이지만 분량도 많고 매년 새로운 판례도 등장하기 때문에 공부 전략을 세우기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저는 헌법 내용이 기본권, 정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의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최소한 기본권, 정부, 국회 세 영역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영역은 다소 비중을 줄여 공부했습니다. 헌법은 점수 자체가 1차 합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 아니기에 과락을 안정적으로 면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2) 언어논리

언어논리는 크게 수능 비문학과 유사한 지문 형식의 문제와 논리 퀴즈 형식의 문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문 형식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개 지문의 주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철학, 예술 분야의 지문이 나올 경우 글이 빨리 읽히지 않아 상당히 고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반면, 과학이나 역사 지문은 평소에 관심이 많던 분야라 빠르게 읽었습니다. 결국 지문 형식의 문제는 평상시에 얼마나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졌는지가 독해 속도와 글의 이해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의 교양 수업을 활용해 철학, 예술 분야의 글을 접하고자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논리 퀴즈 형식의 문제는 기본에 충실하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된 문장을 논리 기호를 활용해 변형하는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대부분의 논리 퀴즈

문제는 무난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주요 논리 기호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마다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연습했습니다.

### (3) 자료해석

자료해석은 처음 PSAT을 접할 때 가장 많이 고전하지만, 동시에 문제접근법과 계산 방법 등을 학습하여 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5년 여름방학에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PSAT 자료해석 방학특강을 계기로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내용 중 어렵 계산, 분수간 대소비교, 퍼센트 값의 빠른 계산법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해석 문제에서 활용 가능한 계산법들이므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문제풀이에 쓰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계산훈련용 교재를 자투리 시간마다 풀며 꾸준히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 또한 소요 시간 단축과 계산 정확도 향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문제유형이 매우 다양하여 유형별 전략을 갖추어야 하는 과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치부합, 법조문, 퀴즈 등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일치부합과 법조문 문제의 경우 대부분 맞추어야 1차 합격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중 법조문 문제는 단서 조항을 꼭 확인하여 예외사항 적용여부를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쉬운 문제임에도 단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아 점수를 잃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퀴즈 문제는 많은 수험생이 대응하기 어려워하는 유형이라 생각되며, 저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활용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퀴즈 문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만 떠올릴 수 있다면 1분도 채 걸리지 않아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답노트에 해설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는지 등을 적어보며 퀴즈 풀이를 놀이처럼 접근했습니다.

## 2. 2차 시험

2차 시험은 절대적인 공부량도 많고, 내용도 상당히 어렵고, 5일간 시험이 진행되어 체력적인 부담도 크므로 행정고시에서 가장 까다로운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을 다루기에 앞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략을 네 가지 정도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단권화를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단권화는 시험일 당일 오전에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황중후 강사님의 트리니티 교재, 정선균 강사님의 핸드북 등 시중 교재에 필기 내용, 수업에서 배부되는 단권화 자료, 주요 판례집 등을 적절히 결합하면 충분히 훌륭한 단권화 서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목차를 적으면서 내용을 연상하는 연습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꼭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각 단원별로 나누어져 있던 조각들이 큰 틀에서 맞춰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전에 각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내용 간 연계를 이끌어내기에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제 답안 작성시 초안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시간 안에 10페이지를 채우려면 시간적인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안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초안을 활용해 뼈대를 잘 세우

고 시작하면 수정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포함해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고 매끄럽게 답안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초안을 얼마나 자세하게 작성할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간략한 키워드라도 활용하여 초안을 마련한다면 답안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끝으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 기본 원리로 되돌아가 접근하면 해결이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의 경우 경제주체의 극대·극소화원리, 행정법의 경우 법조문, 행정학의 경우 행정가치가 유용한 기본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 (1) 경제학

경제학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과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며 동일한 모형의 여러 변형을 접한다면 실전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모형의 주요 키워드, 그래프 등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에 답안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숙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은 답안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풀이를 시작하면 답안도 깔끔하게 구조화되고 기본적인 개념들도 충실히 숙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2) 행정법

행정법은 제가 가장 까다롭게 느꼈던 과목입니다. 처음에는 암기가 전부라고 생각했으나 공부량이 누적되며 점차 판례와 이론에 내포된 법리가 이해되었습니다. 행정법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해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3순환 모의고사 외에도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역기스연습, 박정훈 교수님의 행정법 사례연습 등을 통해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답안의 목차를 적어보며 내용을 연상하는 연습으로 보충했습니다.

문제풀이 외에 실제 판례를 많이 접할 필요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판례100선과 3순환 최신 판례 자료집을 밥을 먹을 때나 잠들기 전에 읽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정 판례를 변형하여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판례와 친숙해지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 행정학

행정학은 사례를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를 하며 단원별로 각 내용과 관련 있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강사님께서 배부하는 추가 논문자료를 읽으며 행정학의 최근 이슈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 논문자료가 양이 많지만 좋은 사례도 있고 최근 화두가 되는 쟁점들도 다루고 있으므로 시간을 내어 꼭 읽고 요약했습니다.

### (4) 재정학

재정학은 실증연구 결과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고득점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중휴 강사님의 재정학 연습책과 김진욱 강사님의 재정학 모의고사 ZIP을 모두 풀었는데, 각 문제집에 있는 실증연구 결과들을 모두 접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정학은 경제학보다 약술하는 문제의 비중이 꽤 있습니다. 두 강사님의 문제집을 모두 풀어보며 더 충실한 답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재정학 시험에서 황중휴 강사님의 단권화 자료가 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탄력성 규칙의 심화 내용을 단권화 자료에서

소개하셨는데 관련된 내용이 출제되어 해당 내용을 변형하여 활용했습니다. 재정학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을 답안에 활용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 (5) 국제경제학

재경직을 목표로 준비하는 수험생들께서는 국제경제학을 택할지 통계학을 택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을 택한다면 경제학에서 국제경제학을 공부하기 위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통계학이 고득점에 유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 비교하여 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제경제학은 크게 국제무역론과 국제금융론으로 구분됩니다. 큰 틀에서 국제무역론은 무역에, 국제금융론은 환율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영역 모두 모형들의 기본가정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경제학은 재정학과 마찬가지로 수식을 통해 푸는 문제 외에 약술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그렇기에 출제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은 미리 1~2문단 정도로 정리해 답안 초안을 암기해두면 시험장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 3. 3차 시험(면접시험)

3차 시험인 면접은 스테디를 구성하여 준비했습니다. 스테디와는 별도로 면접대비학원도 다녔습니다. 집단토의는 스테디에서 최대한 많이 연습하며 어색함을 줄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동시에 제 발언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공직가치 및 인성 면접의 경우, 적극행

정우수사례, 우수공무원사례들을 인사혁신처 블로그 등에서 검색하여 활용도가 높은 사례는 따로 모아 정리했습니다. 특히,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정리해둔 한 사례는 실전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직무역량면접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스테디원들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비했습니다.

### IV. 마치며

많은 수험생 분들께서 각자 다른 공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제가 이 수기에 적은 내용들이 반드시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께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며 선배님들의 합격수기를 읽으며 동기부여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험생활을 하며 후회없는 오늘을 보내자는 말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2018년도 시험에서 마침내 노력과 운이 함께 따라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도 좋은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험기간 동안 저를 변함없이 응원해주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이모부, 삼촌, 숙모, 천현미 선생님, 오병문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도 연락하며 응원해준 고등학교 16기 선배들, 17기 동기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시험 및 면접 준비에 대해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격려해주신 서호성 선배님과 행정고시반에서 제게 많이 신경 써주신 안병준 형 감사합니다.